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이익섭 원장, 미주 지역 초청 강의

이익섭 국립국어연구원장은 1997년 8월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재미 한인학교 협의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제15차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에 초청을 받아 한국어 강의를 하고 돌아왔다.

1. 파견 일정 : 1997. 8. 6. ~1997. 8. 12.
2. 장소 : 미국 시카고의 O'Hare Marriott 호텔
3. 파견자 : 이익섭(국립국어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채완(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임동훈(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4. 대상 : 미국 전역의 한글학교 교사 (400~500명)
5. 강의 내용, 담당자 :
 - 한국의 언어- 이익섭(국립국어연구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 한국어 문법(조사, 어미)- 채완(동덕여대 교수)
 - 한국어의 경어법- 임동훈(학예연구사)
 - 한국어 어문 규정(맞춤법)- 양명희(학예연구사)

2. 1997년도 한국어 전문가 국외파견과 재외 동포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우리 연구원과 한국어문진흥회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으로 한국어 전문가의 국외파견 연수와 재외 동포 한국어 교사의 초청 연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I. 파견 연수

가. 파견 내역

1.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1997년 7월 1일 ~ 7월 15일
서태룡(동국대학교 교수), 임동훈(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2. 러시아 사할린 : 1997년 7월 2일 ~ 7월 16일
강정희(한남대학교 교수), 김옥순(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3.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 1997년 7월 17일 ~ 7월 30일
김창섭(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명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4. 중국 길림성 장춘 : 1997년 7월 14일 ~ 7월 28일
이승재(어문실태연구부장, 가톨릭대학교 교수),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5. 중국 요령성 심양 : 1997년 7월 13일 ~ 1997년 7월 28일
송철의(서울대학교 교수), 이승재(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나. 파견 연수 내용, 대상, 장소

1. 내용

- 가) 우리의 어문 규범
- 나) 우리 말과 글의 역사
- 다) 언어 예절
- 라) 남북한 언어 규범과 어휘의 비교 해설

2. 연수 장소, 대상

- 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59명)
- 나) 러시아 사할린 : 사할린 한국교육원 (40명)
- 다) 카자흐스탄 알마아타 : 알마아타 한국교육원 (50명)
- 라) 중국 길림성 장춘 : 홍기소학(紅旗小學) (50명)
- 마) 중국 요령성 심양 : 조선족 제1중학교 (35명)

II. 초청 연수

가. 피초청자

1. 중국 (6명)

- 김영수(남) 길림성 연변대학 인문학원 조선어계 교사
- 양선옥(여) 길림성 영길현 교육국 부국장
- 김성춘(남) 길림성 동북삼성조선어문공작협작소조판공실 부주임과원
- 김혜란(여) 흑룡강성 흑룡강신문사 시사부 주임
- 최순자(여) 흑룡강성 목단강시 조선족소학 조선어 교사
- 김도원(남) 요령성 심양시 교육연구실 민족교연부 주임

2. 독립국가연합 (7명)

- 문경자(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학교 교사

복장녀(여) 사할린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국립사범대학교 교수
이 발렌진(남) 모스크바 국제대학교 한국어학부 부학장, 교수
김 벨리(여) 타스켄트주 뿔리토텔 집단농장 제19학교 한국어 교사
강 안젤리나(여) 타슈켄트시 센타 14, 돔-33 한국교육원 한국어 교사
하 알라(여) 까라간다 81번 쉬폴라(교사), 고려문화중앙 교사
이 스페플라나(여) 잠블 제13학교 한국어 교사

나. 초청 기간 : 1997년 8월 13일(수) ~ 8월 27일(수)

다. 연수 장소, 내용, 담당자

1. 장소 : 북악파크호텔(정릉 소재)

2. 연수 내용, 담당자

- 가) 우리 말과 글의 역사 : 이익섭(국립국어연구원장, 서울대 교수),
이승재(어문실태연구부장, 가톨릭대 교수), 안병희(서울대 교수).
- 나) 한국 문학 : 권영민(서울대 교수), 김현자(이화여대 교수)
- 다) 국어 문법 : 민현식(어문규범연구부장, 숙명여대 교수), 강정희
(한남대 교수), 송철의(서울대 교수), 채완(동덕여대 교수)
- 라) 남북한 어문 규범과 어휘의 비교 : 전수태(국립국어연구원 학예
연구관), 정희원(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 마) 어문 규범 : 한재영(한신대 교수), 김창섭(이화여대 교수), 김희
진(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임동훈(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
구사)
- 바) 언어 예절과 외래어 : 서정목(서강대 교수), 김세중(국립국어연
구원 학예연구관)

사) 문화유적지 답사·산업 시설 견학 : 경주 일원, 포항제철, 울산 현
대자동차.

3.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관한 국어심의회의와 소위원회 개최

국어심의회의 표기법분과위원회는 1997년 6월 18일 회의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모음의 표기와 ‘ㄹ’ 표기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집약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6일, 7월 1일, 7월 4일, 7월 24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소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된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ㄱ, ㅋ, ㆁ, ㄷ’에 대해서는 e, ei, u, wu로 표기하고 ‘ㅈ, ㅊ’에 대해서는 ai, oi로 표기하며 ‘ㄹ’은 l 하나로 통일하여 표기하는 방안이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전자법(轉字法, transliteration) 방안을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는데 전자법 원칙에 충실하게 하자는 쪽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성씨 표기에 대해서는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기형으로 통일하는 안을 포함하여 몇 가지 방안을 국어심의회의에서 논의하도록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연구원은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까지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약 1천 명을 대상으로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4. 국어문화학교 번역반 개최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제26기 국어문화학교 번역반을 6월 25일부터 27일 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40분까지) 덕수궁 안의 문화재관리국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강좌는 출판업계의 번역 담당자 및 아마추어 번역가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김병남(61세) 씨를 비롯하여 63명이 수강하였다. 번역반은 아래 8개 강좌로 이루어졌다.

- 특 강 : 이익섭(국립국어연구원장, 서울대 교수)
- 잘못된 번역 : 황찬호(전 서울대 영문과 교수)
- 번역 일반론 : 이상욱(서울대 영문과 교수)
- 한국의 번역 문화 : 이한우(조선일보 기자, 번역가)
- 국어 문법과 번역 : 임홍빈(서울대 국문과 교수)
- 번역의 실제 : 김정우(경남대 국문과 교수)
- 일본어 번역의 몇 가지 문제 : 강인선(서울대 강사)
- 외래어 표기법 : 김세중(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5. 한자 표준화 사업 관련 국제 회의 참석

국제 표준화 기구(ISO)에서 주관하는 두 개의 국제 회의, 제9차 IRG 회의와 제33차 SC2/WG2 회의가 중국과 그리스에서 1997년 5월과 6~7월에 각각 열렸다. IRG(Ideographic Rapporteur Group) 회의는 국제 표준화 기구

(ISO)의 문자 정보 처리분과(SC2)에 속하는 회의로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 두 회의에 “한중일 한자 표준화 사업” 담당자인 이준석(李浚碩) 학예연구사가 참석하였다. 이들 회의는 전 세계가 컴퓨터로 문자를 구현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되는 전산 부호 체계(電算符號體系)의 표준화와 관련 있는 회의다.

1. ISO/IEC JTC1/SC2/WG2/IRG 제9차 회의

가. 회의 기간 : 1997년 5월 5일~ 5월 9일

나. 모인 곳 : 중국 남경(南京)의 남경 이공대학(南京 理工大學)

다. 회원국, 참가국 : 현재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미국 등의 8개국으로서, 이번 회의에는 싱가포르를 제외한 7개국 28명이 참석하였다.

라. 회의 결과 : 한자의 전산 자형(font)을 제출할 시한, 한자 부수 추가 문제, 그 명칭에 대하여 결의하였고, 추가 한자 세트를 정정하는 작업도 함께 하였다. 현재 우리 나라는 중소기업청 국립기술품질원 주관으로 IRG에 대응하는 한자특별전문위원회(KIRG)를 운영하고 있다.

2. ISO/IEC JTC1/SC2/WG2 제33차 회의

가. 회의 기간 : 1997년 6월 30일~7월 4일

나. 모인 곳 : 그리스 이라클리온

다. 회원국, 참가국 : 23개국 33명이 참여

라. 회의 결과 : 이 회의에서 논의되어 의결된 사항 가운데 우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의 전산 부호와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 이미 반영된 한글의 배치를 재확인하고 오류를 수정하였는데, 기본 다국어 평면(基本多國語平面, BMP : Basic Multilingual Plane)의 한글 배치 공간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71 HANGUL EXTENDED” → “71 HANGUL SYLLABLES”)

2) 한글의 전산 자형을 수정하여 1997년 8월 15일까지 다시 제출하기로 하였다.

3) 구결자(口訣字)는 추가로 연구해 1998년 3월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까지 제출할 것을 결정하였다.

4) 한자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반영된 완성형 한자 일부(1,834자)에 대한 전산 자형을 1997년 9월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고,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한자는 새로이 발굴해 보조평면에 새로 등록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IRG의 활동에 일임하였으며, 조합형 한자를 구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기 IRG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할 것을 승인하였다.

3. 기구 성격

가. 국제 표준화 기구(ISO)의 문자 정보 처리 분과(SC2) :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1984년 일본의 교토에서 개최된 TC97 분과 위원회에서 국제 규격의 전산 부호를 새로이 제정하는 사업

계획안을 확정하였고, 1988년 4월 이 기구 산하에 ‘문자 부호 분과’를 제2분과로 삼아 그 명칭을 다음과 같이 ISO/IEC JTC1/SC2/WG2로 정하였는데 이 때 전세계 국가들 사이에 쓰이는 문자와 한자 문화권 국가들이 사용하는 전산 한자의 자수(字數) 등에 부여할 부호(符號)의 표준화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등도 세계 유수 컴퓨터 회사들의 연합(consortium)인 유니코드를 통해 국제 표준화 기구(ISO)와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 문자를 모두 수록함으로써 전 세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국제 문자 표준 부호 체계의 제정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기구(ISO)는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총회, 기술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1997년 9월 현재 기술위원회 TC 169개, 분과위원회 SC 645개, 실무위원회 WG 1,738개 등이 있다.

나. 국제 한자 특별 전문 위원회(IRG) :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중일 삼국은 1990년 2월 서울에서 한자특별위원회 성격의 CJK/JRG(한중일의 Joint research group)를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그해 7월에 도쿄에서 열린 CJK/JRG 제1차 회의에서 ISO 10646의 한자 부문에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표준 한자를 통합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1993년에 CJK/JRG는 국제 표준화 기구의 정식 조직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발전적으로 해체되었고, WG2 산하의 정

식 기구인 IRG로 재편되었다. 이러한 출발 배경을 지닌 IRG는 전 세계 한자 문화권의 상호 정보 교류 및 문화 발전을 위해 국제 표준 문자 부호 체계인 기본 다국어 평면에 각국이 서로 다르게 쓰고 있는 한자의 자체(字體)와 부호를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대를 대비하는 <문화비전 2000>

“문화의 세기가 오고 있다”